

선거와 행복: 20대 대통령 선거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의 변화*

김 영 주¹⁾ 차 승 은²⁾ 구 자 일²⁾ 최 인 철^{1)†}

¹⁾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²⁾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대통령 선거는 국가의 경제, 문화, 복지 등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개인의 행복 경험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치적 사건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직 국내에서 경험적으로 탐구되지 않은 선거와 행복의 관계를 탐구하기 위해 대규모 행복 횡단 자료(연구 1; $N = 22,939$)와 네 시점에 걸쳐 행복을 반복 측정한 종단 자료(연구 2; $N = 833$)를 사용하여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른 행복의 변화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통령 선거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지지하는 후보자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선거 결과를 긍정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연구 1: 윤석열 득표율이 높은 지역 거주자, 연구 2: 윤석열 지지자)의 주관적 안녕감은 선거 전후로 차이가 없었던 반면, 선거 결과를 부정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연구 1: 이재명 득표율이 높은 지역 거주자, 연구 2: 이재명 지지자)의 주관적 안녕감은 선거 직후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이는 한 달 가까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거와 행복의 관계를 탐색했다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 결과는 선거를 긍정적으로 경험하는 것보다 부정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대통령 선거, 주관적 안녕감, 행복, 정서, 삶 만족도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행복연구센터의 연구, 교육사업 및 운영기금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것임.

†교신저자: 최인철,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Tel: 02-880-6437, E-mail: ichoi@snu.ac.kr



© 2023, Korea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대통령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 소속된 국민이 선거를 통해 국가를 대표하는 한 사람을 직접 선출하는 정치적 행위로서, 대통령 선거 결과는 국가의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복지 등 사회 전반에 대대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회적 사건이다. 그 중요성의 크기를 증명하듯, 선거전(全) 과정 동안 대선 후보 토론, 여론 조사, 지역별 선거 운동 등 다양한 선거 관련 행위가 전 국민적인 관심을 통해 이뤄진다. 대통령 선거 과정과 그 결과는 사회의 거시적 특징에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시적 수준에서 사회에 속한 구성원의 삶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대통령 선거는 주요 사회정치적 사건이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한 독특한 기회라고도 볼 수 있는데 (Hoyt, Zeiders, Chaku, Toomey, & Nair, 2018), 선행 연구에 의하면 선거는 다양한 심리적 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Bernstein, Young, & Claypool, 2010; Craig, Martinez, Gainous, & Kane, 2006; Frost & Fingerhut, 2016; Kaiser, Drury, Spalding, Cheryan, & O'Brien, 2009; Ruisch & Ferguson, 2022). 예를 들어, 선거 과정 혹은 선거 결과는 정부에 대한 태도 및 민주주의에 대한 지각(Craig et al., 2006), 사회 불평등에 대한 인식(Kaiser et al., 2009), 관계 만족도(Frost & Fingerhut, 2016)에 영향을 주고, 소수집단에 대한 외현적 편견(Ruisch & Ferguson, 2022)뿐만 아니라 암묵적 편견(Bernstein et al., 2010) 등 집단 간 관계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다.

선거가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당히 많이 탐구되어 온 주제 중 하나는 선거와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SWB)의 관계이다. 기존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통령 선거는 사회에 속한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사회적 요인 중 하나로서 선거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는 지지하는 후보자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맺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외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가 활발히 이뤄져 왔지만, 국내에서

둘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참여자를 대상으로 선거가 사회 구성원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를 처음으로 시도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2022년 3월에 치러진 20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사회정치적 사건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탐색하기로 하였다.

선거와 행복

선거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탐색한 기존 연구에 의하면 선거가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 경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먼저 선행 연구에 의하면, 선거를 긍정 사건으로 경험하느냐 혹은 부정 사건으로 경험하느냐에 따라 선거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다. 즉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거나 낙선되는 경험은 유권자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었다(Kinari, Ohtake, Kimball, Morimoto, & Tsutsui, 2019; Lench, Levine, Perez, Carpenter, Carlson, & Tibbett, 2019; Napier & Jost, 2008; Norris, Dumville, & Lacy, 2011). 예를 들어,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조지 W. 부시가 당선된 직후, 진보 성향의 사람들은 보수 성향의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를 낮게 보고 하였으며(Napier & Jost, 2008),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버락 오바마가 당선되었을 때, 오바마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선거 이전에 예측한 것보다 실제로 더 큰 행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Norris et al., 2011). 비슷하게,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후, 트럼프 지지자들은 선거 이전보다 선거 직후 주관적 안녕감이 소폭 증가한 반면, 반대 진영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의 지지자들은 선거 직후 주관적 안녕감이 대폭 감소하였다(Lench et al., 2019).

선거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는 미국과 같은 서구 문화권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도 나타난다. 2009년 일본 중의원 총선거에 따른

행복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民主党)을 지지하는 일본인들은 선거 이전보다 선거 직후 행복이 증가했지만, 선거에서 패배한 자민당(自民黨)을 지지하는 일본인들은 선거 이전보다 선거 직후 행복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nari et al., 2019).

이처럼 선거를 긍정 사건으로 경험하느냐 혹은 부정 사건으로 경험하느냐에 따라 행복 경험에서 차이가 있지만, 지지하는 후보자 혹은 정치 정당과는 독립적으로, 선거 자체는 대부분 유권자의 행복을 감소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09년 이스라엘에서 이뤄진 연구에 의하면 선거는 연구 참여자의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 그리고 스트레스 수준을 모두 증가시키는 사회적 사건으로 작용했으며(Waismel-Manor, Ifergane, & Cohen, 2011), 비슷한 맥락에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연구 참여자 대부분이 부정 정서의 증가를 경험하고 긍정 정서에 대해서는 큰 변화를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Hoyt et al., 2018). 선거가 긍정 정서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되지 않았지만, 부정 정서는 일관되게 높아지는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선거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보다는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7; Hoyt et al., 2018).

나아가, 선거는 자기 보고(self-report) 형식으로 응답한 행복 수준뿐만 아니라 행복과 연관된 신체적/생리적 반응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선거 기간 동안 생리적 반응의 변화를 탐색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선거는 신체 건강이나 특정 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호르몬인 코티솔과 테스토스테론 수준의 변화를 가져왔으며(Hoyt et al., 2018; Trawalter, Chung, DeSantis, Simon, & Adam, 2012; Waismel-Manor et al., 2011), 심지어 선거 과정에 활발히 참여하지 않는 집단(예: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의 코티솔 변화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Zeiders, Nair, Hoyt, Pace, & Cruze, 2020).

선거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

나 지속되는지를 탐구한 선행 연구들도 있다. 선거 직후 행복 수준을 여러 시점에 걸쳐 관찰함으로써 선거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의 시간적 지속성을 탐색한 연구에 의하면, 선거 직후 증가하거나 감소한 행복 수준은 하루 혹은 이틀 안에 원래 수준으로 복귀하는 경향을 보였다(Hoyt et al., 2018; Kinari et al., 2019). 이는 사람들이 새로운 상황에 꽤 빠르게 적응하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에 대해 심리적 회복력을 갖추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Hoyt et al., 2018). 한편, 선거 직후 변화한 주관적 안녕감 수준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한다는 점을 보여준 연구도 있다. 2016년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주관적 안녕감의 증가를 경험한 트럼프 지지자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원래 수준, 즉 선거 이전 수준으로 주관적 안녕감이 되돌아가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힐러리 클린턴 지지자들, 즉 지지하던 후보자가 선거에서 패배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주관적 안녕감은 6개월이 지나도 원래 수준으로 오르지 못했다(Lench et al., 2019). 이와 같은 결과는 선거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의 지속성은 다소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처럼 선거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영향의 지속성이 연구마다 결과가 상이하고 다양한 양상을 맺고 있음을 보여준 연구들과 달리, 선거와 주관적 안녕감 간에 유의한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한 연구들도 있다. 즉 선거가 항상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며, 같은 국가에서 이뤄진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주관적 안녕감을 예측하지 못하기도 했다(Gilbert, Pinel, Wilson, Blumberg, & Wheatley, 1998; Tsutsui, Kimball, & Ohtake, 2010). 예를 들어, 2005년 일본 중의원 총선거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승리를 거둔 당시, 서로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간에 선거 이후 측정된 행복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sutsui et al., 2010). 비슷하게, 1994년 미국 텍사스 주(stare)의

지방 선거 이후 선거에서 승리한 당의 지지자들과 패배한 당의 지지자들 간에 행복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Gilbert et al., 1998).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중요한 사회정치적 사건 중 하나인 선거가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선거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는 다양한 양상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거나 낙선되는 경험에 따라 유권자간 주관적 안녕감 경험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신체적 반응 수준에서도 나타났다. 반면 지지하는 정당과 상관없이 선거라는 사건 자체는 대부분 사람들의 주관적 안녕감을 감소시키는 사회정치적 사건이기도 했다. 또한, 선거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 변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되는 정도가 매우 짧은 경우도 있었던 반면, 한번 감소한 주관적 안녕감 수준이 수개월 동안 지속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동일한 국가 내에서 치러진 선거 일지라도 선거와 주관적 안녕감 간에 유의한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한 연구도 있었다. 각 연구가 진행된 시점이 다르고 방법적인 측면에서 연구 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일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상의 연구 결과들은 선거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으며 선거가 이뤄진 사회적 맥락과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따라 관계가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처럼 국외에서는 선거가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 연구가 오랫동안 다양한 시점에서 수행되어 왔지만, 국내에서 선거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탐구한 연구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수준 요인 중, 국내에서는 아직 경험적으로 탐구되지 않은 사회정치적 사건 중 하나인 대통령 선거에 초점을 두고 선거가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국내 참여자를 대상으로 경험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본 연구는 선거가 국민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대로 선거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는 다소 일관되지 않은 양상을 보인다. 즉 선거를 긍정적으로 경험(예: 지지한 후보가 당선된 경우)한다고 해서 언제나 주관적 안녕감이 증가하거나, 혹은 선거를 부정적으로 경험(예: 지지한 후보가 낙선된 경우)한다고 해서 반드시 주관적 안녕감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대신,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답을 탐색하는 형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22년 3월 9일에 치러진 20대 대통령 선거 전후로 지지하는 후보자의 당선 여부에 따라 주관적 안녕감 경험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선거를 긍정 사건(지지후보가 당선됨)으로 경험하는 것과 부정 사건(지지후보가 낙선됨)으로 경험하는 것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이러한 영향의 시간에 따른 지속성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두 개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수집한 대규모 횡단 자료를 사용하여 대통령 선거 이전과 선거 이후 주관적 안녕감 수준의 차이를 분석했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다른 연구 피험자를 대상으로 4번의 시점에 걸쳐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된 종단 자료를 사용하여 대통령 선거 이전과 선거 이후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영향의 지속성까지 살펴보기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탐색하려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연구 문제 1. 지지하는 후보에 따라 선거 전후 주관적 안녕감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 2. 지지하는 후보에 따라 선거 전후 주관적 안녕감 수준의 시간에 따른 지속성에

서 차이가 있는가?

연구 1

연구 1은 카카오 같이가치 자료를 사용하여 대통령 선거 전후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를 분석하기로 하였다. 카카오 같이가치 마음날씨(<https://together.kakao.com/hello>) 데이터는 실시간 행복을 측정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행복 데이터로써 카카오 계정이 있는 참여자는 언제 어디서든 “현재” 본인이 경험하고 있는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카카오 같이가치 자료 중,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선거 이전 4일(3월 5일 ~ 3월 8일)과 선거 이후 4일(3월 11일 ~ 3월 14일) 동안 카카오 안녕지수 문항에 응답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카카오 같이가치 자료는 개인의 성별과 연령, 그리고 거주 지역만 수집하며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태도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참여자가 실제로 지지하는 후보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알 수 없다. 따라서 연구 1에서는 참여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득표율 정보를 바탕으로, 대통령 선거 전후 주관적 안녕감의 지역 간 차이를 탐색하였다. 즉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이 더 높았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더 높았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관적 안녕감 수준이 선거 전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기로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카카오 같이가치 안녕지수 문항에 응답한 데이터 중 국내 거주하는 참여자 총 22,939건의 응답치를 분석했다(여성 참여자 74.47%; $M_{연령} =$

36.74, $SD_{연령} = 10.94$, $Range_{연령}$: 19세 ~ 72세). 참여자가 제공한 출생년도 정보를 사용하여 20대 대통령 선거에 투표가 가능한 참여자(2004년 3월 10일 이전 출생)만 분석에 포함하였다. 연구 1에 포함된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측정도구

주관적 안녕감

참여자의 주관적 안녕감은 선행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대로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 그리고 삶 만족도의 조합으로 측정하였다(Diener, 1994; Kahneman & Krueger, 2006). 기존 연구에 의하면 주관적 안녕감은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며, 긍정 정서 경험을 많이 하고 부정 정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를 위해 카카오 같이가치의 안녕지수를 측정하는 문항 중, 긍정 정서, 부정 정서, 삶 만족도 문항에 대한 응답치를 분석하였다. 카카오 같이가치에서는 긍정 정서를 3가지 감정(행복함, 즐거움, 평안함)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부정 정서를 4가지 감정(지루함, 짜증, 우울, 불안)으로 측정한다. 문항 예시는 다음과 같으며 참여자는 모든 질문에 대해 11점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했다. “당신은 지금 얼마나 행복합니까?(0 = 전혀 행복하지 않다, 10 = 매우 행복하다)”, “당신은 지금 즐거운(평안한, 지루한, 짜증나는, 우울한, 불안한) 감정을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0 = 전혀 느끼지 않는다, 10 = 매우 많이 느끼고 있다).”

삶 만족도는 카카오 같이가치에서 사용하는 단일 문항(“당신은 지금 당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합니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0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0 = 매우 만족한다). 기존 연구에서 주관적 안녕감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과 동일하게(Sheldon & Elliot, 1999), 삶 만족도 점수와 긍정 정서 평균값($Cronbach's \alpha = .855$)을 더하고 부정 정서 평균값($Cronbach's \alpha = .847$)을 빼준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변수	구분	연구 1(N = 22,939)		연구 2(N = 833)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연령	20대	7,273	31.71	84	10.08
	30대	7,059	30.77	111	13.33
	40대	4,890	21.32	165	19.81
	50대	3,164	13.79	206	24.73
	60대 이상	553	2.41	267	32.05
성별	여성	17,083	74.47	332	39.86
	남성	5,856	25.53	501	60.14
지역별 분포	서울특별시	5,934	25.87(18.35)		
	부산광역시	1,393	6.07(6.46)		
	대구광역시	1,024	4.46(4.60)		
	인천광역시	1,463	6.38(5.76)		
	광주광역시	754	3.29(2.78)		
	대전광역시	731	3.19(2.81)		
	울산광역시	467	2.04(2.16)		
	세종특별자치시	153	0.67(0.74)		
	경기도	5,958	25.97(26.39)		
	강원도	534	2.33(2.99)		
	충청북도	580	2.53(3.10)		
	충청남도	747	3.26(4.12)		
	전라북도	648	2.82(3.44)		
	전라남도	486	2.12(3.54)		
	경상북도	755	3.29(5.06)		
	경상남도	1,097	4.78(6.38)		
	제주특별자치도	215	0.94(1.32)		

주. 연구 1의 지역별 분포의 비율 정보 중 괄호 안에 들어간 숫자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지역별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참고자료: 행정안전부, 2022).

값으로 주관적 안녕감 점수를 산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시점 및 거주 지역

참여자가 응답한 날짜 정보를 통해 시점(time)

변수를 생성하였다. 구체적으로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을 기준으로, 선거 이전 4일(3월 5일 ~ 3월 8일)과 선거 이후 4일(3월 11일 ~ 3월 14일) 동안 카카오 같이가치 안녕지수 문항에 응답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선거 다음 날인 3월

표 2. 지역별 득표율 정보

시도명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후보자별 득표율(%)	
서울특별시	45.73	50.56
부산광역시	38.15	58.25
대구광역시	21.60	75.14
인천광역시	48.91	47.05
광주광역시	84.82	12.72
대전광역시	46.44	49.55
울산광역시	40.79	54.41
세종특별자치시	51.91	44.14
경기도	50.94	45.62
강원도	41.72	54.18
충청북도	45.12	50.67
충청남도	44.96	51.08
전라북도	82.98	14.42
전라남도	86.10	11.44
경상북도	23.80	72.76
경상남도	37.38	58.24
제주특별자치도	52.59	42.69
합계	47.83	48.56

주. 시도명 순서와 후보 순서는 출처에서 제시된 순서와 동일하게 제시하였음(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2).

10일 새벽까지 선거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3월 10일 응답치는 포함하지 않았다. 분석을 위해 선거 이전 4일 동안 응답한 경우를 0으로 코딩하고(13,066명, 56.96%), 선거 이후 4일 동안 응답한 경우는 1로 코딩하였다(9,873명, 43.04%).¹⁾

1) 카카오 같이가치 자료의 특성 상 참여자는 언제든지 복수 응답이 가능하다. 연구에 포함된 기간 내에서 2회 이상 행복 문항에 응답한 참여자는 전체 중 6%로,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 2에서 피험자의 행복을 체계적으로 반복 측정할 자료를 분석했기

다음으로, 카카오 같이가치 자료에서 제공하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정보를 사용하여 최종 후보자별 득표율 결과에 따라(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2) 참여자의 지역을 두 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더 높았던 7개 지역(경기도,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0으로 코딩하고(9,677명, 42.19%), 이재명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이 더 높았던 10개 지역(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1로 코딩하여(13,262명, 57.81%) 분석에 사용하였다. 지역별 후보 득표율 정보는 표 2에 제시하였다.

결 과

연구에 포함된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평균과 표준편차) 및 단순상관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또한 주관적 안녕감의 전체 평균과 3가지 하위 요소(삶 만족도, 긍정 정서, 부정 정서)의 시점 및 지역별 평균 정보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연구 문제 1을 탐색하기 위해, 득표율로 구분한 지역의 주관적 안녕감 수준이 대통령 선거 전후로 달라졌는지 비교하기 위한 이원 독립 집단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시점(2: 대선 이전 vs. 대선 이후)과 지역(2: 윤석열 득표율 > 이재명 득표율 vs. 윤석열 득표율 < 이재명 득표율)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중심으로 결과를 살펴보았으며, 참여자의 성별과 연령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한 모형의 결과도 추가 보고하였다.

때문에 연구 1에서는 참여자의 최초 응답 값만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표 3.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연구 1; $N = 22,939$)

	1	2	3	4	5
1. 득표율 지역	-				
2. 시점	.00	-			
3. 성별	.02***	-.02**	-		
4. 나이	-.03***	-.08***	.13***	-	
5. 주관적 안녕감	.00	-.01	-.01	.07***	-
<i>M (SD)</i>	0.57 (0.49)	0.43 (0.50)	0.74 (0.44)	36.74 (10.94)	6.69 (6.44)

주. 득표율 지역: 0 = 이재명 득표율 > 윤석열 득표율, 1 = 윤석열 득표율 > 이재명 득표율; 시점: 0 = 대선 이전, 1 = 대선 이후; 성별: 0 = 남성, 1 = 여성

** $p < 0.01$, *** $p < 0.001$.

표 4. 주관적 안녕감 및 하위 요소의 평균과 표준편차(연구 1; $N = 22,939$)

	주관적 안녕감		삶 만족도		긍정 정서		부정 정서	
	이 > 윤	윤 > 이	이 > 윤	윤 > 이	이 > 윤	윤 > 이	이 > 윤	윤 > 이
	M (SD)							
대선 이전	6.85 (6.39)	6.67 (6.54)	5.84 (2.51)	5.79 (2.57)	5.59 (2.24)	5.50 (2.30)	4.58 (2.52)	4.62 (2.52)
대선 이후	6.46 (6.45)	6.71 (6.33)	5.74 (2.53)	5.80 (2.49)	5.46 (2.26)	5.54 (2.22)	4.74 (2.52)	4.62 (2.48)

주. 이 > 윤 = 이재명 득표율이 윤석열 득표율보다 높은 지역; 윤 > 이 = 윤석열 득표율이 이재명 득표율보다 높은 지역

통상적으로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에는 각 요인의 주효과는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주효과의 통계적 유의성만 보고하였다.²⁾

2) 주관적 안녕감은, 인지적 요소인 삶 만족도와 정서적 요인인 긍정 정서, 부정 정서, 이렇게 세 가지 하위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와 동일한 분석을, 하위 요소별로도 실시해 보았다. 그 결과, 삶 만족도는 패턴은 동일했으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고($p = .125$),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의 경우 유의한 상호작용이 있었다, 긍정 정서 : $F(1, 22935) = 7.71, p = .006$ & 부정 정서 : $F(1, 22935) = 5.82, p = .016$. 즉, 이재명 득표율이 높았던 지역은 대선 이전보다 이후에 긍정 정서는 감소하고 부정 정서는 증가했으며

이원 독립 집단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시점과 지역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22935) = 6.35, p = .011, \text{partial } \eta^2 = .0003$. 즉, 지역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는 대선 전후에 따라 유의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각 지역 내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를 시점에 따라 자세히 살

이 차이가 유의하였다. 반면 윤석열 득표율이 높았던 지역은 대선 이전과 대선 이후의 긍정 정서 및 부정 정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통제 변인을 포함했을 때 상호작용 효과는 여전히 유의하였다, all p s $\leq .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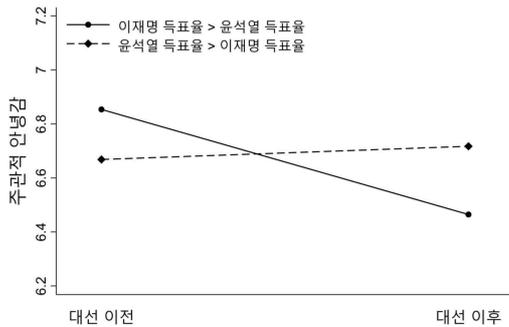


그림 1. 득표율 지역에 따른 대통령 선거 이전과 선거 이후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연구 1).

주. 통제변인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의 통계치를 바탕으로 그렸음.

파괴기 위해 Bonferroni 방법을 사용하여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재명 득표율이 높았던 지역의 경우, 대선 이전($M = 6.85$)보다 대선 이후($M = 6.46$)의 주관적 안녕감이 감소하였으며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19$). 반면 윤석열 득표율이 높았던 지역의 경우, 대선 이전($M = 6.67$)과 대선 이후($M = 6.72$)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 = 1.00$). 추가로, 성별과 연령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여 동일한 모형을 분석했을 때도 상호작용 효과는 여전히 유의하였다, $R(1, 22933) = 6.48, p = .011, \text{partial } \eta^2 = .0003$. 시점과 지역의 주효과를 살펴본 결과, 통제 변인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 시점의 주효과가 유의하였으나, $R(1, 22935) = 3.83, p = .050$, 통제 변인을 포함했을 때는 시점의 주효과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으며($p = .265$), 지역의 주효과는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_s \geq .443$).³⁾

3) 17개 지역 중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 차이가 미미한 지역이 있었는데, 가령 인천광역시 경우 두 후보 간 득표율 차이가 단 1.86%밖에 되지 않았다(표 2). 따라서 득표율을 통해 지역을 구분하는 대신, 지역별 각 후보의 실제 득표율 점수를 사용하여 추가 분석을 실시해보았다. 구체적으로, 17개 지역별 윤석열

논 의

연구 1에서는 약 2만 명 이상의 방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대통령 선거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득표율로 구분한 지역 간에 대통령 선거 이전과 이후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한 결과, 대선 전후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는 지지하는 후보자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이 더 높았던 지역에 거주하는 참여자들은 대선 이전과 이후 행복이 다르지 않았다. 즉 지지하는 후보자가 당선됨으로써 대통령 선거를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주관적 안녕감이 대선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을 보였다. 반면, 윤석열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더 높았던 지역에 거주하는 참여자들의 행복은 대선 이전과 크게 다른 양상을 보였다. 즉 지지하는 후보자가 낙선됨으로써 대통령 선거를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대선 이전보다 대선 이후에 주관적 안녕감이 크게 감소했다.

연구 1의 결과는 대통령 선거와 같은 사회정치적 사건이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국

후보의 최종 득표율과 시점 간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과 시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으며 본문에 기술한 것과 동일한 양상의 결과를 확인하였다, $B = 0.02, SE = 0.01, t(22935) = 2.82, p = .005$. 즉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1SD)에서는 대선 이전과 대선 이후 주관적 안녕감에서 차이가 없었던 반면, $B = 0.11, p = .379$,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1SD)에서는 대선 이전보다 대선 이후 주관적 안녕감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B = -0.38, p = .002$. 추가로, 성별과 연령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였을 때도 동일한 패턴의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였다, $B = 0.02, SE = 0.01, t(22933) = 2.93, p = .003$.

내 참여자를 대상으로 처음 검증하였다. 비록 효과 크기는 크지 않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 이를 긍정적으로 경험한 사람들과 부정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의 주관적 안녕감이 서로 다르게 변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연구 1의 결과는 선거를 긍정적인 사건으로 경험할 때보다 선거를 부정적인 사건으로 경험할 때 행복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 1은 두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로, 연구 1에서는 거주 지역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참여자를 긍정 경험 집단과 부정 경험 집단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참여자가 실제로 어떤 후보를 지지했는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둘째로, 연구 1에서 비교한 조건에는 서로 다른 참여자가 속해있기 때문에(즉, 참여자간 설계: between-subject design) 참여자의 주관적 안녕감이 대통령 선거 전후로 실제로 변화했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구 2에서는 실제로 지지하는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측정하고, 동일한 참여자의 주관적 안녕감을 여러 시점에 걸쳐 반복 측정하여(즉, 참여자내 설계; within-subject design)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의 변화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선거와 행복의 관계를 알아보기로 하였다.

연구 2

연구 2에서는 대통령 선거 전후로 동일한 참여자의 주관적 안녕감을 반복 측정하여, 지지하는 후보자에 따른 실제 행복의 변화를 알아보기로 하였다. 나아가 선거 전후 행복 수준의 변화가 시간에 따라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2에서는 2주 간격으로 총 네 시점에 걸쳐 개인의 행복을 반복 측정하였다. 또한 연구 1에서 자료 접근의 한계로 인해 얻지 못한 부가적인

정보를 통제변인으로 측정하여 선거와 행복의 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연구 2는 온라인 조사 기관 중 하나인 엠브레인(Embrain)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대통령 선거 전후로 2주 간격을 두고 총 4번 조사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1차 조사는 대통령 선거로부터 2주 전(2022년 2월 23일부터 약 3~4일 간; $N_{t1} = 1,833$ 명)에, 2차 조사는 대통령 선거 주간(2022년 3월 10일부터 약 3~4일 간; $N_{t2} = 1,191$)에, 3차 조사는 대통령 선거 2주 후(2022년 3월 24일부터 약 3~4일 간; $N_{t3} = 984$ 명)에 실시되었으며, 마지막 4차 조사는 대통령 선거로부터 1개월 후인 2022년 4월 7일부터 3~4일 간 실시되었다($N_{t4} = 842$ 명). 1차 조사 시 윤석열 혹은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응답했으며 1차부터 4차까지 빠짐없이 응답한 참여자 842명 중 투표하지 않은 참여자 9명을 제외한 833명이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여성 참여자 39.86%, $M_{연령} = 49.43$, $SD_{연령} = 12.94$, $Range_{연령}$: 20~69세).⁴⁾ 연구 2에 포함된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조사 참여에 대한 보상은 조사업체 내부 방침에 따라 적립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연구 2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IRB No. 2202/004-015).

측정도구

주관적 안녕감

네 번의 조사 모두 연구 1에서 사용한 것과

4) 투표 여부는 선거 직후 진행한 2차 조사 시점에 측정하였으며, 투표하지 않은 9명을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해도 연구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였다. 즉 3가지 긍정 정서(Cronbach's α = .892)와 4가지 부정 정서(Cronbach's α = .881), 및 삶 만족도를 측정하였으며, 연구 1과 같은 방식으로 주관적 안녕감을 계산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지지 후보자

대통령 선거 전인 1차 조사에서 지지하는 후보자를 측정하였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833명 중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참여자가 441명이었고(52.94%),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참여자는 392명이었다(47.06%).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를 0으로 코딩하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를 1로 코딩하였으며 이를 지지하는 후보자 요인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통제 변인

1차 조사에서 연구의 통제변인으로 포함할 정치적 성향 및 인구통계학적 변수(성별, 나이, 최종 학력, 주관적 사회계층)를 측정하였다. 정치적 성향은 1개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참여자는 7점 척도를 사용해 응답하였다(1 = 매우 진보, 4 = 중도, 7 = 매우 보수). 참여자의 최종 학력은 8개 범주를 제시하여 측정하였다(1 = 무학, 2 = 초등학교 졸업, 3 = 중학교 졸업, 4 = 고등학교 졸업, 5 = 전문대학 졸업, 6 = 4년제 대학 졸업, 7 = 대학원 졸업(석사), 8 = 대학원 졸업(박사)). 마지막으로 주관적 사회계층은 MacArthur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Adler, Epel, Castellazzo, & Ickovics, 2000). 이 측정 도구는 10단계 사다리 그림을 통해 개인이 속한 사회 내에서 자신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이다. 참여자들은 현재 한국 사회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신이 속해있다고 생각하는 곳의 번호를 선택하도록 하였다(1 = 최하위, 10 = 최상위).

결 과

연구에 포함된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평균과 표준편차) 및 단순상관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주관적 안녕감의 전체 평균과 3가지 하위 요소(삶 만족도, 긍정 정서, 부정 정서)의 시점 및 지역별 평균 정보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연구 문제 1과 연구 문제 2를 탐색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 전후로 네 번에 걸쳐 반복 측정된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 수준이 지지하는 후보자에 따라 달라졌는지를 비교하는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지하는 후보자는 독립 집단 요인에 속하고, 네 시점에서 행복을 반복 측정했기 때문에 이원 혼합 설계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시점(4: 대선 이전 vs. 대선 직후 vs. 대선 2주 후 vs. 대선 1달 후)과 지지하는 후보자(2: 윤석열 vs. 이재명)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중심으로 결과를 살펴보았다. 시점 요인이 반복 측정 요인이기 때문에 Mauchly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하여 Greenhouse-Geisser의 조정된 p 값을 통해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통제 변인(성별, 연령, 정치적 성향, 최종 학력, 주관적 사회계층)을 포함한 모형의 결과도 추가 보고하였다.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 각 요인의 주효과는 통계적 유의성만 보고하였다.⁵⁾

5)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연구 2에서도 삶 만족도와 긍정 정서, 부정 정서를 종속변수로 하여 이원 혼합 설계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시점과 지지 후보자의 상호작용 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삶 만족도: $F(3, 2493) = 20.14, p < .001$ & 긍정 정서: $F(3, 2493) = 24.48, p < .001$ & 부정 정서: $F(3, 2493) = 12.76, p < .001$. 즉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참여자의 경우, 대선 이전보다 대선 직후 삶 만족도와 긍정 정서가 유의하게 감소하고 부정 정서는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패턴은 대선 2주 후와 대선 1달 후 시점까지도 이어졌다. 다만 부정 정서는 2주 정도가 지나면 시점부터는 대선 이전 수준만큼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

표 5.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연구 2; N = 833)

	1	2	3	4	5	6	7	8	9	10
1. 지지하는 후보	-									
2. 성별	.01	-								
3. 나이	.06	.04	-							
4. 최종 학력	-.06	-.12***	-.02	-						
5. 주관적 사회계층	.07*	.01	.04	.24***	-					
6. 정치적 성향	.57***	.01	.01	-.05	.06	-				
7. 주관적 안녕감(T1)	-.03	.06	.13***	.10**	.42***	-.02	-			
8. 주관적 안녕감(T2)	.17***	.04	.09**	.07	.41***	.15***	.74***	-		
9. 주관적 안녕감(T3)	.12***	.04	.13***	.07*	.40***	.10**	.77***	.83***	-	
10. 주관적 안녕감(T4)	.08*	.04	.10**	.09**	.40***	.07*	.77***	.82***	.88***	-
<i>M (SD)</i>	0.53 (0.50)	0.40 (0.49)	49.43 (12.94)	5.69 (1.04)	5.27 (1.71)	4.09 (1.29)	8.13 (5.30)	7.27 (5.88)	7.67 (5.87)	7.77 (5.85)

주. 지지하는 후보: 0 = 이재명, 1 = 윤석열; 성별: 0 = 남성, 1 = 여성

* $p < 0.05$, ** $p < 0.01$, *** $p < 0.001$.

이원 혼합 설계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시점과 지지 후보자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3, 2493) = 30.00$, $p < .001$, partial $\eta^2 = .035$. 즉, 지지하는 후보자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는 대선 전후 시점에 따라 유의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지지하는 후보자 유형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를 시점에 따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Bonferroni 방법을 통한 사후 검정을 실시하여 대선 이전 시점(time 1)의 주관적 안녕감과 비교해보았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참여자의 경우, 대선 이전($M_{t1} = 8.27$)보다 대선 직후($M_{t2} = 6.23$) 주관

다. 반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참여자의 경우, 대선 이전과 대선 직후, 삶 만족도와 긍정 정서, 부정 정서에서 모두 차이가 없었고, 이는 2주 후와 대선 1달 후 시점까지도 내내 변화가 없는 패턴을 보였다. 다만 부정 정서는 대선 2주가 되는 시점에서 약간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다. 통제 변인을 포함했을 때도 상호작용 효과는 여전히 유의하였다, all $p_s \leq .017$.

적 안녕감이 유의하게 감소했으며, $t(2493) = 11.38$, $p < .001$, 대선 2주 후 약간 반등하였으나 ($M_{t3} = 6.91$) 대선 이전만큼 오르진 못했고, $t(2493) = 7.61$, $p < .001$, 1달 후($M_{t4} = 7.28$)가 되는 시점까지도 대선 이전 수준으로 주관적 안녕감이 회복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였다, $t(2493) = 5.56$, $p < .001$. 반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참여자의 경우, 대선 이전($M_{t1} = 8.01$)보다 대선 직후($M_{t2} = 8.20$) 주관적 안녕감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t(2493) = -1.12$, $p = 1.00$, 대선 2주 후($M_{t3} = 8.35$), $t(2493) = -2.03$, $p = .260$, 1달 후($M_{t4} = 8.20$) 까지도 변화가 없었다, $t(2493) = -1.15$, $p = 1.00$. 추가로, 통제 변인을 포함하여 동일한 모형을 분석했을 때도 상호작용 효과는 여전히 유의하였다, $F(3, 2478) = 11.68$, $p < .001$, partial $\eta^2 = .014$.

지지 후보자와 시점의 주효과를 살펴본 결과, 통제 변인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에서는 지지후

표 6. 주관적 안녕감 및 하위 요소의 평균과 표준편차(연구 2; N = 833)

	주관적 안녕감		삶 만족도		긍정 정서		부정 정서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M (SD)							
대선 이전	8.27 (4.94)	8.01 (5.60)	6.35 (1.93)	6.16 (2.21)	6.06 (1.75)	6.07 (1.99)	4.14 (2.09)	4.22 (2.25)
대선 직후	6.23 (5.45)	8.20 (6.09)	5.62 (2.10)	6.16 (2.25)	5.24 (2.00)	6.04 (2.11)	4.64 (2.15)	4.01 (2.41)
대선 2주 후	6.91 (5.65)	8.35 (5.99)	5.71 (2.04)	6.20 (2.17)	5.55 (1.96)	6.07 (2.08)	4.35 (2.26)	3.92 (2.38)
대선 1달 후	7.28 (5.54)	8.20 (6.10)	5.81 (2.04)	6.17 (2.19)	5.69 (1.94)	6.01 (2.11)	4.24 (2.18)	3.98 (2.43)

주. 이재명 = 이재명 지지자; 윤석열 = 윤석열 지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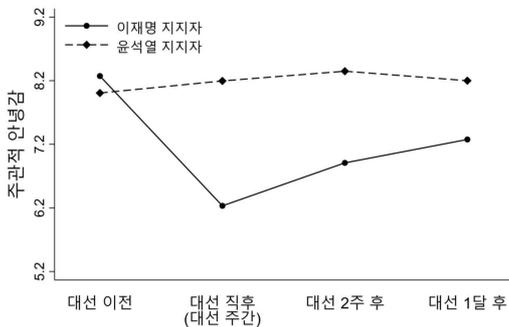


그림 2. 지지하는 후보에 따른 대통령 선거 이전과 선거 이후 주관적 안녕감의 변화(연구 2).

주. 통제변인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의 통계치를 바탕으로 그렸음.

보자와 시점의 주효과가 모두 유의했으나(지지 후보자: $F(1, 831) = 7.72, p = .006, \text{partial } \eta^2 = .01$ & 시점: $F(3, 2493) = 19.06, p < .001, \text{partial } \eta^2 = .02$), 통제 변인을 포함하였을 때는 시점과 지지 후보자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지지 후보자: $F(1, 826) = 1.19, p = .275, \text{partial } \eta^2 = .001$ & 시점: $F(3, 2478) = 4.30, p = .553, \text{partial } \eta^2 = .001$).

논 의

연구 2에서는 참여자의 주관적 안녕감을 여러 시점에 걸쳐 반복 측정함으로써 대통령 선거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과 그 지속성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연구 1의 결과와 동일하게 지지하는 후보자에 따라 대통령 선거 전후 주관적 안녕감의 경험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선 이전(time 1)과 대선 직후(time 2)의 주관적 안녕감만 비교해 보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참여자들은 대선 이전과 대선 이후 간에 주관적 안녕감에서 차이가 없었다. 즉 지지하는 후보자가 당선됨으로써 대통령 선거를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주관적 안녕감은 대선 이전과 다르지 않은 양상을 보여 연구 1에서 관찰한 것과 동일한 양상의 결과를 확인하였다. 반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참여자들의 주관적 안녕감은 대선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즉 지지하는 후보자가 낙선됨으로써 대통령 선거를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주관적 안녕감이 대선 이전보다 대선 직후에 큰 폭으로 감소하여 연구 1에서 관찰한 것과 같은 양상의 결과를 확인하였다.

나아가 연구 2에서는 대선 2주 후, 그리고 한 달 후 시점까지 주관적 안녕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윤석열 지지자들의 주관적 안녕감은 2주 후, 그리고 한 달 후까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재명 지지자들의 주관적 안녕감은 2주 후,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시점까지도 계속 낮게 유지되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였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관찰한 것과 유사한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대통령 선거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의 지속성까지 확인함으로써 선거가 사람들의 행복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을 보다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 2는 동일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대통령 선거 전후 여러 시점에 걸쳐 행복을 반복 측정함으로써 실제 행복의 변화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대통령 선거와 행복의 관계에 관한 보다 정확한 그림을 제공할 것이다.

종합 논의

대통령 선거는 한 국가의 경제, 문화, 정치 등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 동시에 사회에 속한 개인의 행복 경험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치적 사건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치적 요인이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직 국내에서는 제대로 탐구된 바 없는, 대통령 선거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만 명 이상의 행복을 측정한 횡단 자료(연구 1)와, 8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 시점에 걸쳐 행복을 반복 측정한 종단 자료(연구 2)를 사용하여 2022년 3월 9일에 치러진 20대 대통령 선거 전후로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았다. 두 개의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로, 연구 문제 1을 탐색한 결과, 대통령

선거 결과를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 선거 이전과 선거 직후 주관적 안녕감의 변화에서 차이가 있었다. 대통령 선거 결과를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경험한 참여자들의 주관적 안녕감은 선거 직후 거의 변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이 더 높은 지역에 거주하거나(연구 1) 실제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참여자(연구 2)들의 선거 직후 주관적 안녕감은 선거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와 달리 대통령 선거 결과를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경험한 참여자들의 주관적 안녕감은 선거 이전과 선거 직후 간에 큰 변화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더 높은 지역에 거주하거나(연구 1) 실제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참여자(연구 2)들의 선거 직후 주관적 안녕감은 선거 이전보다 크게 감소하였다.

둘째로, 연구 문제 2를 탐색한 결과, 대통령 선거 직후 변화한 주관적 안녕감 수준의 시간에 따른 지속성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선거 직후 주관적 안녕감의 변화뿐만 아니라 선거 2주 후, 그리고 1달 후까지 주관적 안녕감의 변화를 추적 조사한 결과(연구 2), 선거 직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던 윤석열 후보 지지자의 주관적 안녕감은 이후 한 달 동안 큰 변동이 없었다. 반면 선거 직후 주관적 안녕감이 큰 폭으로 감소했던 이재명 후보 지지자의 주관적 안녕감은 다른 패튼의 지속성을 보였다. 이재명 후보 지지자의 주관적 안녕감은 선거 2주 후 반등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선거 이전보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지지자의 주관적 안녕감보다도 낮았으며, 심지어 한 달이 지난 시점까지도 주관적 안녕감이 선거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였다.

결과의 흥미로운 점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참여자, 즉 대통령 선거를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사건으로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주관적 안녕감이 선거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와 반대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참여자, 즉 대통령 선거를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사건으로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주관적 안녕감은 선거 이전과 크게 달라졌으며 상당한 폭으로 주관적 안녕감이 감소하는 변화를 경험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의 측면에서 해석해볼 수 있다.

주관적 안녕감의 변화를 다룬 기존 연구에 의하면, 주관적 안녕감은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개인을 둘러싼 외부 상황에 대한 반응폭이 상대적으로 작으며 잘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ird, Lucas, & Donnellan, 2010; Diener, Suh, Lucas, & Smith, 1999; Lucas & Donnellan, 2007). 주관적 안녕감이 대체로 안정적인 속성을 갖고는 있지만, 부정적인 사건, 예컨대 실직, 사별, 이혼 등과 같은 사건이나 미래 자신의 삶에 큰 파장을 미치는 사건은 주관적 안녕감을 큰 폭으로 바꿔놓기도 한다(Lucas, Clark, Georgellis, & Diener, 2003, 2004). 이러한 점에서 미루어볼 때 대통령 선거 결과, 승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주관적 안녕감이 크게 변화하지 않은 반면, 패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주관적 안녕감은 부정 사건을 경험함으로써 더 크게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대통령 선거가 개인의 행복 경험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직이나 건강 문제 등과 같은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사건이 행복 경험에 미치는 영향력과 동일 선상에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행복을 예측하는 요인을 탐구한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개인의 행복은 개인적인 성공 혹은 실패에 달려있기도 하지만,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거리가 있는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에 의해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 예컨대 국가의 소득 불평등 수준은 국민의 행복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Oishi, Kesebir, & Diener, 2011), 국가적 자연 재해 경험도 개인의 행복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Uchida, Takahashi, & Kawahara, 2014).

비슷한 맥락에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에 더 많은 주

의(attention)를 두는 경향이 있으며, 부정적인 정보로부터 받는 심리적 영향의 크기가 훨씬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Baumeister, Bratslavsky, Finkenauer, & Vohs, 2001; McNeil, Pauker, Sox, & Tversky, 1982; Rozin & Royzman, 2001; Tversky & Kahneman, 1981). 또한 일상적인 사건보다 주의를 끄는 놀라운 사건이 정서 경험에 더 길게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Wilson, Meyers, & Gilbert, 2003). 이러한 점에서 미루어볼 때, 대통령 선거 결과를 긍정적으로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 지지자에게 선거 결과가 가져오는 심리적 파급력이 훨씬 컸을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더 오랜 시간 동안 행복의 감소가 지속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힐러리 클린턴 지지자들의 주관적 안녕감이 반년이 지나도록 낮게 유지되었던 결과와도 유사하다(Lench et al., 2019).

본 연구 결과는 선거 결과의 예측 가능성 정도로도 일부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 일본에서 수행된 연구에 의하면, 선거 전후 유권자들의 행복의 변화는 선거 결과에 대한 기대와 실제 결과에서 차이가 컸던 사람들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Kinari et al., 2019). 즉 선거 전에 예상했던 결과와 실제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선거 이전과 선거 이후 행복이 다르지 않았던 반면에, 예상했던 결과와 실제 결과 간의 간극이 컸던 사람들의 경우에서만 행복에서 차이가 나타났다(Kinari et al., 2019). 다시 말해서, 선거 결과 자체보다 그 결과에 대해 사전에 갖고 있던 기대나 예측이 선거 결과에 따른 행복 변화를 좌우할 가능성이 있다. 결과 예측이 쉬웠다면 실령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된다 해도 크게 행복하지도, 반대로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낙선한다 해도 크게 낙담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예측이 어려울수록 선거 결과가 행복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20대 대통령 선거는 어느 때보다도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던 선거에 속한다. 선거 당일 출구 조사는 물론 선거 이틀 전까지도 두 후보의 지지도 차이가 단 1%밖에 되지 않았으며(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22), 최종 득표율 차이는 1퍼센트도 되지 않았다(표 2). 이런 상황에서 긍정 경험보다는 부정 경험을 더 많이 했을 사람들의 행복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통령 선거의 특성상,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즉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기반하여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와 다른 경쟁 후보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기반하여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원하지 않는 후보가 낙선되는 것이 가져오는 긍정 경험은 크지 않은 반면, 원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가져오는 부정 경험이 행복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요인을 사전에 측정하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선거 결과를 얼마나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측정하여 선거 결과에 따른 행복 변화를 세밀하게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선거와 행복의 관계에서 작동하는 다양한 조절 변수의 역할을 추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선거 결과의 예측가능성 뿐만 아니라, 정치적 활동 여부, 혹은 후보자와의 동일시 정도 역시 조절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예컨대 선행 연구에 의하면, 지지하는 후보와의 동일시를 강하게 하는 사람들일수록 선거 패배 후 무력감과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Dwyer, Chang, Hannay, & Algoe, 2019). 본 연구는 선거와 행복의 관계를 국내에서 처음 수행한다는 점에서 둘 간의 관계 양상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다양한 제 3의 변수들의 조절 효과

를 탐색하지는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 선거와 행복의 관계에서 작동하는 다양한 심리적 변수 혹은 상황적 요인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흥미로운 연구 주제인 동시에 선거와 행복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풍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선거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의 지속성을 예측하는 개인 특성이나 상황적 특성에 초점을 둔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선거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의 지속성은 연구마다 다소 일관되지 않다. 선거로 인한 행복의 변화가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선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만(Hoyt et al., 2018), 행복 감소의 효과가 6개월 가까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었다(Lench et al., 2019). 따라서 선거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나거나 오래 지속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심리적 특징(예: 성격 요인), 문화적 특징, 및 선거 당시 정치 상황의 특징 등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로,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안녕감에 초점을 맞추고 선거와 행복을 탐구하였다. 주관적 안녕감은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쾌락주의적 관점(hedonism)에서 행복을 폭 넓게 정의한 행복관에 속하며, 선거와 행복 간 관계를 탐구한 선행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행복 지표에 속한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기실현적 관점(eudaimonism)에서 행복을 정의한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의 측면에서 행복을 정의해 볼 수 있다. 심리적 안녕감은 주관적 안녕감에서 강조하는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 즉 단순한 쾌(快)를 넘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충만히 느끼는 삶이 행복의 중요 요소라고 바라보며 개인적인 성장, 긍정적인 인간관계, 통제감과 자율성 등으로 정의된다(Ryan & Deci, 2001; Ryff & Keyes, 1995). 향후 연구에서 선거가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탐구함으로써 주요 사회정치적 사건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살펴본다면 더욱 풍성한 논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연구 1에서 사용된 카카오 같이가치 자료의 경우, 참여자 대부분이 여성이며(74.47%)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참여자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고, 선택 편향 가능성 문제 등 자료가 갖고 있는 제한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성별과 연령을 통제하였으며 연구 2에서 보다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모형에 투입하여 일관된 결론을 얻었다는 점에서 연구 1에서 사용한 자료가 지니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가 국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정치적 선거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특히 본 연구에서 선거 결과를 긍정적으로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주관적 안녕감이 잘 변하지 않았던 결과를 통해 선거에서의 승리 집단은 행복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번 선거는 보수 정당 후보자가 당선되었기 때문에 향후 진보 정당 후보자가 당선된 대통령 선거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날지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가 국내에서 선거와 행복의 관계를 탐색한 첫 연구라는 점을 감안하여 풍부한 후속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서론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선거와 행복의 관계는 동일한 문화권 내에서도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는 선거와 국민의 행복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으며 선거가 이뤄지는 당시 사회적 분위기 및 정치적 상황 등 사회적 맥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내국인을 대상으로 선거와 행복의 관계를 탐구하는 연구가 다양한 시점에서 활발히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김영주는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박사후 연구원으로 경제적 불평등 및 사회계층의 심리적 영향과 행복을 연구하고 있다.

차승은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 학생으로 웰빙, 개인차에 따른 행복 수준 및 행복 변화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구자일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 학생으로 행복과 세상에 관한 신념이 개인의 행복 수준 및 행복 변화에 미치는 과정을 연구하고 있다.

최인철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자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센터장으로 문화와 인지, 긍정심리학, 사회인지 및 의사결정을 연구하고 있다.

참고문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2).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진행상황 [결과보기탭]. <http://info.nec.go.kr/main/showDocument.xhtml?electionId=0020220309&topMenuId=VC&secondMenuId=VCCP09>.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22). 한국 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 486호(2022년 3월 7일) - 제20대 대통령선거 D-2후보 지지도, 정치 관련 인식. [https://www.gallup.co.kr/dir/GallupKoreaDaily/GallupKoreaDailyOpinion_486\(20220309\).pdf](https://www.gallup.co.kr/dir/GallupKoreaDaily/GallupKoreaDailyOpinion_486(20220309).pdf)

행정안전부 (2022). 「주민등록인구현황」 2022.10, 행정구역(시군구)별, 성별 인구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A3&conn_path=I2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7). Stress in America: Coping with Change. Stress in America Survey. Retrieved from. <https://www.apa.org/news/press/releases/stress/2016/coping-with-change.pdf>

Adler, N. E., Epel, E. S., Castellazzo, G., & Ickovics, J. R. (2000). Relationship of subjective and

- objective social status with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functioning: Preliminary data in healthy, White women. *Health Psychology, 19*(6), 586-592.
<http://dx.doi.org/10.1037//0278-6133.19.6.586>
- Baird, B. M., Lucas, R. E., & Donnellan, M. B. (2010). Life satisfaction across the lifespan: Findings from two nationally representative panel stud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99*, 183-203.
<http://dx.doi.org/10.1007/s11205-010-9584-9>
- Baumeister, R. F., Bratslavsky, E., Finkenauer, C., & Vohs, K. D. (2001). Bad is stronger than good.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5*(4), 323-370.
<https://doi.org/10.1037/1089-2680.5.4.323>
- Bernstein, M. J., Young, S. G., & Claypool, H. M. (2010). Is Obama's win a gain for Blacks?: Changes in implicit racial prejudice following the 2008 election. *Social Psychology, 41*(3), 147-151.
<https://doi.org/10.1027/1864-9335/a000021>
- Craig, S. C., Martinez, M. D., Gainous, J., & Kane, J. G. (2006). Winners, losers, and election context: voter responses to the 2000 presidential election.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9*(4), 579-592.
<https://doi.org/10.1177/106591290605900407>
- Diener, E. (1994).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2), 103-157. <https://doi.org/10.1007/BF01207052>
-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 276-302. <http://dx.doi.org/10.1037/0033-2909.125.2.276>
- Dwyer, P. C., Chang, Y. P., Hannay, J., & Algoe, S. B. (2019). When does activism benefit well-being? Evidence from a longitudinal study of Clinton voters in the 2016 US presidential election. *Plos One, 14*(9), e0221754.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21754>
- Frost, D. M., & Fingerhut, A. W. (2016). Daily exposure to negative campaign messages decreases same-sex couples' psychological and relational well-being.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19*(4), 477-492.
<https://doi.org/10.1177/1368430216642028>
- Gilbert, D. T., Pinel, E. C., Wilson, T. D., Blumberg, S. J., & Wheatley, T. P. (1998). Immune neglect: a source of durability bias in affective forecast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3), 617-638.
<https://doi.org/10.1037/0022-3514.75.3.617>
- Hoyt, L. T., Zeiders, K. H., Chaku, N., Toomey, R. B., & Nair, R. L. (2018). Young adults'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reactions to the 2016 US presidential election. *Psychoneuroendocrinology, 92*, 162-169.
<https://doi.org/10.1016/j.psyneuen.2018.03.011>
- Kahneman, D., & Krueger, A. B. (2006). Developments in the measurement of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0*(1), 3-24.
<https://doi.org/10.1257/089533006776526030>
- Kaiser, C. R., Drury, B. J., Spalding, K. E., Cheryan, S., & O'Brien, L. T. (2009). The ironic consequences of Obama's election: Decreased support for social justic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5*(3), 556-559.
<https://doi.org/10.1016/j.jesp.2009.01.006>
- Kinari, Y., Ohtake, F., Kimball, M., Morimoto, S., & Tsutsui, Y. (2019). Happiness before and after an election: An analysis based on a daily survey around Japan's 2009 election. *Japan and the World Economy, 49*, 187-194.
<https://doi.org/10.1016/j.japwor.2018.12.001>
- Lench, H. C., Levine, L. J., Perez, K. A., Carpenter, Z. K., Carlson, S. J., & Tibbett, T. (2019). Changes in subjective well-being following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of 2016. *Emotion, 19*(1), 1-9. <https://doi.org/10.1037/emo0000411>

- Lucas, R. E., Clark, A. E., Georgellis, Y., & Diener, E. (2003). Reexamining adaptation and the set point model of happiness: Reactions to changes in marital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3), 527-539.
<http://dx.doi.org/10.1037/0022-3514.84.3.527>
- Lucas, R. E., Clark, A. E., Georgellis, Y., & Diener, E. (2004). Unemployment alters the set point for life satisfaction. *Psychological Science, 15*(1), 8-13.
<https://doi.org/10.1111/j.0963-7214.2004.01501002.x>
- Lucas, R. E., & Donnellan, M. B. (2007). How stable is happiness? Using the STARTS model to estimate the stability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1*(5), 1091-1098. <http://dx.doi.org/10.1016/j.jrp.2006.11.005>
- McNeil, B. J., Pauker, S. G., Sox, H. C., & Tversky, A. (1982). On the elicitation of preferences for alternative therapies.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06*(21), 1259-1262.
<https://doi.org/10.1056/NEJM198205273062103>
- Napier, J. L., & Jost, J. T. (2008). Why Are Conservatives happier than liberals? *Psychological Science, 19*(6), 565-572.
<https://doi.org/10.1111/j.1467-9280.2008.02124.x>
- Norris, C. J., Dumville, A. G., & Lacy, D. P. (2011). Affective forecasting errors in the 2008 election: Underpredicting happiness. *Political Psychology, 32*(2), 235-249.
<https://doi.org/10.1111/j.1467-9221.2010.00818.x>
- Oishi, S., Kesebir, S. & Diener, E. (2011). Income Inequality and Happiness. *Psychological Science, 22*(9), 1095-1100.
<https://doi.org/10.1177/0956797611417262>
- Rozin, P., & Royzman, E. B. (2001). Negativity bias, negativity dominance, and contag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5*(4), 296-320.
https://doi.org/10.1207/S15327957PSPR0504_2
- Ruisch, B. C., & Ferguson, M. J. (2022). Changes in Americans' prejudices during the presidency of Donald Trump. *Nature Human Behaviour, 6*(5), 656-665.
<https://doi.org/10.1038/s41562-021-01287-2>
- Ryan, R. M., & Deci, E. L. (2001). On happiness and human potentials: A review of research on hedonic and eudaimonic well-be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1), 141-166.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52.1.141>
- Ryff, C. D., & Keyes, C. L. M.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4), 719-727.
<https://doi.org/10.1037/0022-3514.69.4.719>
- Sheldon, K. M., & Elliot, A. J. (1999). Goal striving, need satisfaction, and longitudinal well-being: The self-concordance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3), 482-497.
<https://doi.org/10.1037/0022-3514.76.3.482>
- Trawalter, S., Chung, V. S., DeSantis, A. S., Simon, C. D., & Adam, E. K. (2012). Physiological stress responses to the 2008 US presidential election: The role of policy preferences and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15*(3), 333-345.
<https://doi.org/10.1177/1368430211428163>
- Tsutsui, Y., Kimball, M., & Ohtake, F. (2010). Koizumi carried the day: Did the Japanese election results make people happy and unhapp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6*(1), 12-24.
https://doi.org/10.1007/978-4-431-55402-8_16
- Tversky, A., & Kahneman, D. (1981). The framing of decisions and the psychology of choice. *Science, 211*(4481), 453-458.
 DOI: 10.1126/science.7455683
- Uchida, Y., Takahashi, Y., & Kawahara, K. (2014).

- Changes in hedonic and eudaimonic well-being after a severe nationwide disaster: The case of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5(1), 207-221.
<https://doi.org/10.1007/s10902-013-9463-6>
- Waismel-Manor, I., Ifergane, G., & Cohen, H. (2011). When endocrinology and democracy collide: Emotions, cortisol and voting at national elections. *European Neuropsychopharmacology*, 21(11), 789-795.
<https://doi.org/10.1016/j.euroneuro.2011.03.003>
- Wilson, T. D., Meyers, J., & Gilbert, D. T. (2003). "How happy was I, anyway?" A retrospective impact bias. *Social Cognition*, 21(6), 421-446.
<https://doi.org/10.1521/soco.21.6.421.28688>
- Zeiders, K. H., Nair, R. L., Hoyt, L. T., Pace, T. W., & Cruze, A. (2020). Latino early adolescents'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responses during the 2016 US presidential election.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26(2), 169-175.
<https://doi.org/10.1037/cdp0000301>

1 차원고접수 : 2022. 09. 01.
수정원고접수 : 2022. 11. 23.
최종게재결정 : 2022. 12. 06.

Election and Happiness: Changes in Subjective Well-being Following the 20th Sou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Youngju Kim¹⁾ Seung Eun Cha²⁾ Xyle Ku²⁾ Incheol Choi^{1)2)†}

¹⁾Center for Happiness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²⁾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A presidential election is a sociopolitical event that not only influences the entire society, including the economy, culture, and politics, but also the happiness of individuals in the society. In this study, we aimed to empirically explore the association of a presidential election with happiness. To do so, we analyzed Subjective Well-Being (SWB) trajectories around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held on 9th March 2022 by materializing large-scale cross-sectional data (Study 1; $N = 22,939$) and a repeated measure longitudinal data across four time points (Study 2; $N = 833$).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impact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on SWB differed according to which presidential candidate one supported. The changes in SWB follow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were not significant for those who experienced the election results positively (i.e., regions with a higher number of Yoon supporters & Yoon supporter). However, those who experienced the election results negatively (i.e., regions with a higher number of Lee supporters & Lee supporter) showed a significant dip in their SWB compared to before the election, and this decrease in SWB was maintained over a month. This study has implications in that it is the first study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elections and happiness in South Korea. Interpretations and discussions of the results are further discussed in the General Discussion section.

Keywords : presidential election, subjective well-being, happiness, emotion, life satisfaction